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1/1/2022

22-01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Wh) Solemnity of the Blessed Virgin Mary, the Mother of God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외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1월 / January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For true human fraternity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거룩한 어머니께 찬미드려라”

교황 바오로 6세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가리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아들이게 해주신 거룩한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존엄성을 찬미하는 날이라 밝혔다. * 작품 : [성모 대관식 (The Coronation of the Virgin)] 1645, Oil on canvas, 178x135cm, Museo del Prado, Madrid -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Rodriguez de Silva y Velazquez)

새해의 처음을 여는 1월 1일은 전례력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구원의 협력자’로서의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무 대축일이다. 로마가톨릭교회 전례에서 가장 오래된 마리아 축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축일은 3세기 이전부터 형성된 대중 신심의 하나인 성모 공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성모 공경 신심의 확대 발전은 에페소공의회(431년)를 통해 성모께 ‘테오토코스’(하느님을 낳으신 분,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부여되기에 이른다.

에페소공의회 개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천상 탄생) 축일’을 8월 15일에 지냈는데, 그렇게 볼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공경은 8월 15일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페소공의회 후 성모 신심이 촉진되고 마리아 축일 제정이 시작되면서 하느님 어머니 축일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여러 동방교회에 확산됐다. 특히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탄 축일 신비와 연계되면서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예수 성탄 대축일 다음날인 12월 26일에 ‘하느님의 어머니 축하 축일’을 지냈다고 한다.

서방교회에서는 7세기부터 이 축일을 1월 1일에 지냈다. 로마교회가 그 처음으로 전해지며 ‘성모 천상 탄생 축일’로 1월 1일을 기념했다고 알려진다. 이후 성모승천대축일(8월 15일)과 성모성탄축일(9월 8일)이 도입되면서 성모 공경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트리엔트공의회 이후 ‘주님의 탄생(성탄) 팔일 축제’가 생기면서 축일의 뜻이 흐려지고 그로인해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성모 축일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약화됐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자를 따르며 묵묵히 구원회 협력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작품 : [마리아와 아기 그리스도, 성 스테파노...] 1520, oil on canvas, 132 x 108 cm, Louvre Museum - 베첼리오 티치아노(Veccellio Tiziano)

이런 흐름 속에서 1969년 ‘하느님의 어머니’를 강조하고 기념하게 되면서 1월 1일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정됐다. 특별히 ‘로마에서 1월 1일에 지내던 성 마리아 천상탄생(Natale Sanctae Mariae) 의미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이같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로마에서 지내던 성모대축일 본래의 뜻을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부각된다. 그리고 이날은 아기 예수 탄생의 연장인 팔일 축제로서 성모의 역할을 칭송하는 성모 공경 취지를 담고 있는 것과 함께 새해에 대한 축복과 평화의 기원, 주님의 할례 등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내오던 축일 내용들을 그 이면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도적 권고 「마리아공경」을 통해 교황 바오로 6세는 ‘옛 로마의 전례대로 1월 1일에 지내게 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구원의 신비 안에서 수행하신 마리아의 역할을 기념하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를 맞아들이게 해주신 거룩한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존엄성을 찬미하는 날’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1967년, 1월 1일이 평화의 날로 정해지면서 이 축일은 구원의 문을 여는 성모에게 새해 첫날을 봉헌한다는 뜻이 더해졌다. 바오로 6세는 “이날은 갓 태어나신 평화의 왕을 경배하고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다시 한 번 들으며 평화의 모후를 통해 하느님께 평화의 고귀한 선물을 청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제정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구세주가 오실 수 있도록 응답하면서 구세사의 길을 열었고 예수 탄생에서부터 골고타 언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마리아는 성령 강림날 이뤄진 교회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회의 원형으로 함께하신다. 또 당신 안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자세로 하느님 구원 사업에 협력하고 계신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이러한 뜻을 마음 안에 담으면서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안에 실현하려는 자세를 요구한다.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첫눈, 첫사랑, 첫걸음 첫약속, 첫여행, 첫무대
처음의 것은 늘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순결한 설레임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새해 첫 날 첫기도가 아름답듯이
우리의 모든 아침은 초인종을 누르며
새로이 찾아오는 고운 첫 손님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나팔꽃 같은 얼굴에도
사랑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기침소리에도
가족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어머니의 겸허한 이마에도
아침은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새 아침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밤새 괴로움의 눈물 흘렸던
기다림의 그 순간들도 축복해주십시오.
주님 '듣는 것은 씨 뿌리는 것 실천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 이라는
성 아오스당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곁들기만 했던 좋은 말들
이제는 삶속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은총의 한해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일을 조금씩 미루는 동안
세월은 저만치 비켜가고 어느새 죽음이 성큼 다가옴을
항시 기억하게 하십시오 게으름과 타성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한없이 뜨겁고 순수했던 우리의 첫열정을 새롭히며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는 일 정을 나누는 일에도
정성이 부족하여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가까운 가족끼리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 잘못해서 부끄러운 일 많더라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밝은 태양속에 바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길 위의 푸른 신호등처럼 희망이 우리를 손짓하고
성당의 종소리처럼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는 새해 아침
아침의 사랑으로 먼 길을 가야 할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게 하십시오